

# 전향론 연구

## 노 상 래

### 〈目 次〉

- |                       |                  |
|-----------------------|------------------|
| 1. 서 론                | 1) 전향의 개념        |
| 2. 전향을 낳은 사회사적 배경     | 2) 전향의 유형        |
| 3. 전향의 개념 및 유형-일본의 경우 | 4. 한국에 있어서의 전향문제 |

## 1. 서 론

사노 마나부(佐野學)와 나베야마 사다지카(鍋山貞親)의 전향 소식이 1933년 6월 10일자 각 조간에 일제히 발표되면서 일본에서는 <전향>이라는 단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1925년 5월 11일 법률로 공포된 치안유지법의 강력한 위력이 사노·나베야마를 필두로 한 잇따른 전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전향이 한국에서는 박영희의 「최근문예이론의 신전개와 그 경향」(《동아일보》, 1934.1.2~12)이라는 글을 필두로 하여 본격화되지만 한·일 양국의 전향의 의미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향이라고 하는 말은 사법 당국이 만들어 낸 것으로 당국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사상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다른 말로 하면 ‘권력에 의해 강제된 사상의 변화’<sup>2)</sup>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굴복’이라는 단어가 관련된다. 전향을 행하는 주체가 그것을 받아 들이는 객체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 전향은 ‘자발성’이라는 단어와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1) 사상의 과학연구회 편, 『공동연구 전향』(상)(平凡社, 1965). p.1

2) 위의 책, p.6

전향이라는 말에는 권력의 입장에서 관찰한 사상변화의 현상—권력쪽에 유리한 변화—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의 당사자인 개인으로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굴욕적인 자괴감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이 굴욕감이 전향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드러내 놓고 싶지 않은 아픈 경력, 그것으로 인해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는 검은 사마귀를 볼에 드리운 채’<sup>3)</sup> 살아 가야 하는 전향 당사자의 고통이 전향의 과정을 비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공산당을 배반한 사노·나베야마의 배신이 ‘인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 들여지는 그런 논리가 전향자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한, 전향 연구의 어려움은 미래에도 여전히 존속될 것이다.

전향은 나쁜 것인가? 전향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전향 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문제될 뿐이다. 한국의 경우 전향 = 친일이라는 등식 아닌 등식이 성립되면서 전향 그 자체가 나쁜 것 인양 인식되고 있지만 전향에 의해 새로운 사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의 전향은 ‘자발성’이라는 의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전향과 비전향의 경계선을 구분짓는 일은 어렵다. 왜냐하면 전향이건 비전향이건 그것은 사상과 관련된 것이며, 그 사상은 ‘신념과 행동의 복합체’로 이해되는 추상이기 때문이다. 추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체계가 필요한데 그 체계는 ‘행동’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다. 신념이 추상적인데 반해 행동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전향 여부를 따져 묻는 기준점의 중요한 하나는 ‘행동’이다. 행동이 전과 여일하면 신념이 변함없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행동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신념이 바뀌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신념은 그대로 둔 채 행동만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장 전향이라 부를 수 있다. 어쨌건 전향 문제는 간단히 취급될 성질의 것은 분명 아니다. 일본과 한국의 전향의 양태나 그 개념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한 나라에서의 전향의 형태도 다양하여 유형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위장전향과 비전향을 함께 다루게 되면 전향 문제는 더욱 더 복잡해 진다.

3) 吉本隆明, 『예술적 저항과 좌절』, (미래사, 동경, 1985). p.191

본고에서는 전향을 낳게 된 사회사적 배경과 전향의 개념, 그리고 한·일 양국이 갖는 전향개념의 미묘한 차이 등에 관해 간략하게 기술하려고 한다. 필자 보다 앞선 시대에 일어난 전향에 대해 <비전향만이 옳은 것이었다>라고 간주하는 비전향자의 위치에 자신을 두고 판단하려는 태도가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글을 써내려 가려고 한다. 전향은 권력의 강제력과 개인의 사상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력의 적용 양태의 기술이나 개인 사상의 굴절 과정의 기술, 둘 다 가능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논의는 고를 달리하여 기술하려 한다.

## 2. 전향을 낳은 사회사적 배경

1920년 1월 《經濟學研究》 창간호에 동경제국대학 경제학부 조교수인 모리토 타츠오는 「크로포트킨의 사회사상의 연구」를 발표한다. 이 논문은 대학내 우익 세력의 표적이 되어, 마침내 정치체판으로까지 비화된다. 모리토가 기소된 이유는 그의 논문의 성질이 위법이라고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표 시기가 나빴던 때문이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그 당시 국민의 도덕적 기풍 확립을 위해 모범을 보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논문을 발표한 모리토는 ‘건국의 대정신과 상반되는 언동’을 하는 자로 비난받았으며, 가장 명성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인기를 노려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같은 신기한 지적 유행을 찾고 있다고 비난받았다.<sup>4)</sup>

모리토의 논문은 이상사회의 의미를 밝히고 크로포트킨의 무정부공산주의를 요약한 것인데 크로포트킨의 사회 이상이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어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어 하라 내각은 모리토와 잡지 편집인인 오오우치 히오우에(大内兵衛)를 1월 13일 구속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무정부공산주의는 그것이 현재 바로 실행할 수 있으나 아니냐의 문제와는 별도로 장래 인류의 발달과 함께 실현될 수 있고 또 실현되지 않아서는 안될 사회 이상일 수 있는 것임을 명백히 한 것’<sup>5)</sup>이라고 생각하였다.

1923년 6월 5일 공산당원 피의자가 일본 및 한국의 전역에 걸쳐 검거되었다. 그 중 29명은 1900년 치안경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피의자들의 예심 취

4) 리처드 H. 미첼, 『일제의 사상통제』, (김윤식 역, 일지사, 1982), p.42

5) 리처드 H. 미첼, 위의 책, p.42

조 도중 무정부주의자 오우스기 사카에(大杉榮)와 친교를 맺고 있던 한국인 무정부주의자 박열이 천황 및 섭정국 살해 기도 혐의로 체포된다. 그 해 12월 27일에는 신의회 개회식에 가기 위한 섭정국(황태자)을 남바 다이스케(難波大助)가 피격하는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 난다. 일본인들은 이 사건을 근대사상 가장 불길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취급하였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일본 당국은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위협성과, '한국의 민족주의 운동의 홍류 및 일본 속의 과격분자와 한반도의 과격분자와의 연계의 가능성'<sup>6)</sup>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전에 무정부주의자나 공산주의에 무지했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 두 사건을 통해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며, 특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천황의 충실한 신민들>은 천황과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런 보호 장치는 1923년 관동대진재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난 뒤의 일본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게 된 조선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도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이런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일본 당국은 관동대진진 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한 것은 일본인 및 조선인 무정부주의라는 경고를 라디오 방송이 발표하게 하고, 내무성은 전국에 지령을 내려 조선인 과격분자가 방화를 시작하고 폭탄을 갖고 다닌다고 비난하여 치안유지법의 제정 기틀을 서서히 마련해 갔던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좌익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 1925년 2월 19일 중의원 위원회 제출, 3월 7일 통과, 3월 19일 귀족원 동의, 5월 11일에 법률로 공포된 것은 당시 일본 민중들의 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낸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선동자들, 이들은 매우 두려운 것이다. ....이 두려운 범죄를 다스릴 법이 없다. ....지금대로는 이들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공산주의자는 재산을 평등히 나눌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에 지배되는 정부를 만들 계획이다.'<sup>7)</sup> 이들을 저지할 유일한 방법이 법률 제정이었으며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치안유지법이었다. 그 조항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1) 코쿠타이(國體) 또는 세이타이(政體)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

6) 리차드 H. 미첼, 위의 책, P.57

7) 리차드 H. 미첼, 위의 책, P.72

도를 부인함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를 알고도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전항의 미수죄는 이를 별한다.

제2조.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써 그 목적의 사항의 실행에 관해 협의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써 그 목적의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기타의 조문은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써 폭행 기타 생명 및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규정했다. 또 앞의 제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금품으로써 이런 범죄를 원조한 자 또는 이런 사정을 알고도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규정하고 있다.(앞 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할 경우 형의 경감 또는 면제가 주어졌다.) 끝의 제7조는 이 법의 규정이 이 법 시행 구역 바깥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sup>8)</sup>

이런 내용의 치안유지법 제정은 자국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해 통제되던 당시 식민지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조선의 경우 제1조 1항에 명시된 <코쿠타이>란 말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어떤 학자는 이 용어를 <천황제>와 동일한 의미로 설명하고 있으며,<sup>9)</sup> 이 천황은 일개의 법인인 국가의 최고기관(highest organ of state)으로서, 국가의 집행 작용을 수행하는 권력을 가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sup>10)</sup>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국가 최고 기관으로서의 <천황>이 <코쿠타이>와 동일시되면서 그 속에 윤리적인 권위까지를 획득케 된다. 이런 발상은 일체의 비천황적인 요소를 근절하려는 봉건적 우성인자의 대물림에서 근거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 법을 기초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동경제대 출신이고 이 법을 통과시킨 사람이나 이 법을 집행할 행정 관료, 그리고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상범들 속에도 동경제대 출신이 많다는 사실은 <코쿠타이>라는 말의 사용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대물림의 견고한 실증주의를 마음 속 깊이 지니고 있던 <천황의 충실한 신민>인 많은 <동경제대 출신

8) 『일제의 사상통제』, pp.70~71

9) 위의 책, p.71

10) 위의 책, p.74

지식인들>에게 정서적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그들 자신이 대물림하여 획득한 기득권을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코쿠타이>, 즉 천황제는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당대 帝大 출신의 소수 엘리트들이 일본 천황제하에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일본 사회를 움직여 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다. 동경제대 출신이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어떤 중요한 사안에서는 강력한 동류의식을 발휘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게 하는 정신적인 에네르기를 그들은 자생하고 있었다. 이 동류의식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봉건성의 유산이며 그 봉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감의 대안이 바로 코쿠타이로 나타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공감은 일본인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치안유지법에는 코쿠타이나 세이타이에 도전하는 자들을 봉쇄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표면에 전면적으로 깔려 있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융합과 통일이라는 윤리적인 목적이 음험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통일>이라는 윤리적인 목적이 조선에 적용될 때 조선인들은 당연히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통일은 한 반도의 영원한 식민지화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그런 정치적 야욕은 민족 대 민족의 갈등을 첨예화하기에 충분하였다. 박영희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꼬집고 있다.

사회주의의 정치적 이론으로 말하면 조선의 무산대중과 일본의 사회주의자가 굳게 단결하여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개의 이론이었고 역시 일본 사람은 끝끝내 일본사람이고 조선사람은 끝끝내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그날밤에 느끼게 하였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들의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조선해방을 위한 무산계급의 투쟁의지는 조금도 감소되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 때의 일본의 사회주의자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 이외에는 그들에게 신뢰하지도 않았고 또 해지지도 않았다.<sup>11)</sup>

‘일본사람은 끝끝내 일본사람이고 조선사람은 끝끝내 조선사람’이라는 박영희

11)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측면사」(4), (《현대문학》 제60호, 1959.12), p.266

의 적절한 현실 인식은 당대 일본인들의 음험한 야욕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그런 음험함에 맞서기 위해 한국 사람들은 ‘평생 동안 줄어 들지 않는 고통을 참고 사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직접적인 행동을 택했고, 고통과 불의에 대한 댓가를 받아 내기 위해 직접 행동에 도움이 되는 무기—폭탄, 총, 칼—만을 잡았고’, ‘왜놈에 대한 테러행위’<sup>12)</sup>를 자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치안유지법이 처음 적용된 것은 교토포가쿠렌(京都學連)사건이었다. 1925년 11월 말 군사교련 반대의 뼈라가 교토포의 도우시사(同志社)대학 구내에 뿌려졌는데, 경찰 당국은 비합법인 일본공산당의 배후 공작이 가쿠렌을 통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37명이 검거되며,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석방되나, 다음 해 1월 15일에 2차 검거가 시작되어 약 4개월간 38명의 학생을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한다. 이 사건은 치안유지법 적용의 선례가 되었으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구를 전복코자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을 새법에 의해 입증해 주게 된다.

교토포가쿠렌 사건을 시발로 한 치안유지법의 적용은 1928년 3월 15일 오전 5시에 홋카이도에서 큐우슈에 이르는 대대적인 검거 사건, 소위 ‘3·15사건’을 통해 본격에도 오른다. 이 검거 사건으로 약 1,600명의 피의자가 검거되며 그 중 500여 명이 기소된다. 귀중한 문서가 압수당하고 암호가 해독되며, 명부가 발견되어 공산상의 실체를 일본 당국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당의 세력이 약 100여명인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조사 결과 등록 당원이 409명, 당원 후보가 500여명이라는 사실이 밝혀 지자 일본 당국은 당황하였다. 사실 사상범을 전담하던 사법 당국의 관계자—검사, 판사 등—들조차도 공산주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다음의 글은 그 정도가 어떠했는 지를 잘 알려 주고 있다.

이 사건의 준비는 큰 부담이었다. 이 검사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들은 증거로 압수한 책을 읽음으로써, 또 이론투쟁에 가담함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심문함으로써 그것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철저히 일본 사회를 공격하며, 무의식속에 공산주의의 난해한 원리를 검사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정부측의 사건의 입건을 도왔던 것이다. 검사들은 천황제 문제를 뺀 모든 문제에 대해 피고

12) 님 웨일즈, 『아리랑』 (조우화 역, 동녘, 1984), pp.93~94

인이 논쟁에 열심인 것에 충격을 받았다.<sup>13)</sup>

쿄오토가쿠엔사건 때의 상황이긴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던 그 사정은 3·15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대부분은 사상이 무엇인지, 공산당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따라서 그들은 공산주의에 관해, 사상범의 바른 취급 방법에 관해 따로 배워야 했으며, 어떤 경우는 공산당원을 직접 취조하면서 그 방법들을 배우기도 하였다.

공산주의가 무엇지 몰랐던 검사가 공산주의자를 직접 취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목계 같은 것이 행해졌다. 왜냐하면 사상범의 심문을 떠맡은 검사들은 신문을 받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帝大 출신의 수재였으며 같은 뿌리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피고의 교양을, 더우기 그들의 감수성이나 마음의 뿌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화 초기의 중견 관료층은 사상의 경향으로서는 자유주의, 사고의 방법으로는 앞서 지적했듯이 관학 대물림의 견고한 실증주의를 마음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의 갈등이 사상범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 같다. 나고야구 재판소 검사 부장 하세베 긴고(長部謹吾)는 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나도 일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편파적이고 개인적인 자기중심주의였던 것을 심히 부끄럽게 여긴다. 국가와 사회를 말하며 생각에는 있었지만 그것은 관념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기 생활과 실천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에 와서 처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류의 요소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태도 및 판단의 기초를 돌 곳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기초는 무엇인가? ‘일본인’이라고 하는 것이다.<sup>14)</sup>

사상범들이나 관료들 공히 취조 과정에서 그들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묵시적 동의를 하고 있었으며, 그것도 제대 출신의 엘리트라는 공통점에 의해 더욱 더 선명히 부각되었던 것이다. 정부 당국자와 마찬가지로 제대 출신의 엘리트 사

13) 리차드 H. 미첼, 위의 책, PP.88~89

14) 사상의 과학연구회 편, 앞의 책, PP.18~19

상범들은 ‘다름 아닌 기존권위체제의 일원’<sup>15)</sup>이어서 이전의 과격분자와는 분명히 달랐다. 남바가 중의원의 아들이었고, <빛나는 지도자><sup>16)</sup>로 추앙받았지만 최초의 전향을 하여 공산주의자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던 사노 마나부(佐野學) 역시 東大 출신의 동대 강사였다는 사실이 <다름 아닌 기존권위체제의 일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런 표면적인 조건들은 취조 과정에서 게임의 물과 취조 방법<sup>17)</sup>같은 것을 만 들어 주었으며, 그런 것들은 사상 전쟁에 있어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무기인 ‘사랑’이라는 명분에 의해 지켜질 수 있었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국가를 사랑케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도 역시 프롤레타리아트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sup>18)</sup>라는 대의 명분은 사상범이나 검사 혹은 판사 모두가 <일본인>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게임의 룰이 조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졌는가를 따져 물을 때 그 대답은 명백하며 바로 이것이 <내선일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인은 끝끝내 일본인이고 조선인은 끝끝내 조선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사랑을 이야기 한들 그것이 조선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1928년 보완된 치안유지법에는 이전의 제1조 1항에 있던 내용에 ‘사형’까지 추

15) 리차드 H.미첼, 앞의 책, P.119

16) 사상의 과학연구회편, 앞의 책, P.164

17) 게임의 룰은 대략 이런 것이었다.(리차드.H.미첼, 앞의 책, p.131, )

1) 각각 다른 시기에 검거된 피고인에 통일재판이 주어질 것, 2) 재판은 빨리 행해질 것, 3) 재판은 공개로 할 것, 4) 예심은 빨리 종결해 줄것, 5) 특정한 사항에 관한 피고인 대표의 진술이 허락될 것, 6) 피고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또한 재판소측과 절충을 할 옥중위원회의 대표의 설치를 허락할 것, 7) 지방에서 행해진 재판에 옥중위원회의 위원이 참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8) 법정에 각서 참고자료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할 것.

취조 방법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p.142)

(사상범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협력자어로 될 수 있는 인물과의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검사는 피의자를 비롯거나 조롱해서는 결코 안되며, 정공법으로써 우호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협박이나 거짓말을 사용하지 말고, 친절하게 훌륭한 말상대로서 참을성 있지 않으면 안된다.

18) 坂本英雄, 「사상적 범죄에 대한 연구」, (《사법연구》, 8집 6호, 1928, 12), PP.659~660

가시켰기 때문에 사상범에 대한 처벌 항목이 훨씬 강화되었지만, 3·15 사건으로 사형 연도를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노·나베야마 등이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일본 당국은 사형 이외의 법정 최고형을 연도함으로써 사상 때문에 순교하는 순교자를 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국가가 신민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끊임없이 외치며 그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 애쓰던 3·15사건의 담당 재판장이었던 미야기 조차도 ‘이 재판은 이미 국가적인 문제여서 일개 재판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sup>19)</sup>라고 말함으로써 국가 = 천황 = 코쿠타이가 사법의 독립에 우선하고 있음을 입증해 준다. 실제로 기록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검거된 많은 사람들<sup>20)</sup> 중에 사형된 사람은 단 한명 뿐임을 알려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향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어쩌면 하야시 후사오(林房雄)의 다음 말이 전향의 개념을 완성해 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전향의 길을 열어 준 것은 일본의 國體였다. 외국에서 태어 났다면 우리들은 유형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총살당했을 것이다. 한 사람의 백성도 죽이지 아니하시는 천황폐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향의 길을 열어 주셨다.<sup>21)</sup>

천황폐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환연한다면 코쿠타이의 품에 <다시> 안기는 것—갱생하는 일본의 충실한 신민이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전향의 실체는 존재하는 것이다. 전향이란 단어가 일본의 사법 당국에 의해 구체화된 사실은 이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모든 사상범에게 <천황폐하>의 사랑은 골고루 배풀어져야 하며 그 사랑의 대리 실천자로서 침병 역할을 해야 하는 <충실한 신민>인 관리

19) 리차드 H.미첼, 앞의 책, p.134

20) 한일 양국의 치안유지법에 의해 검거된 검거자 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竝木眞人の,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 (거름, 1984), p.56 및 사상의 과학연구회 편, 앞의 책, p.191 ~192 참조)

|     | 1928  | 1929  | 1930  | 1931   | 1932   | 1933   | 1934  | 1935  | 1936  | 1937  |
|-----|-------|-------|-------|--------|--------|--------|-------|-------|-------|-------|
| 일 본 | 3,424 | 4,942 | 6,124 | 10,422 | 13,938 | 14,624 | 3,994 | 1,772 | 1,645 | 1,291 |
| 한 국 | 796   | 1,088 | 1,888 | 1,445  | 1,628  | 2,796  |       |       |       |       |

21) 本多秋五, 『전향문학론』, (미래사, 동경, 1957), p.212

들, 특히 사상범을 다루는 판료들은 검거된 사상범들에게 이 점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전의 어떤 사상이라도 포기하고 천황의 품으로 나오는 자에게 천황은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줄 것이라는 믿음, 그 신뢰가 많은 사상범들을 전향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그래서 하야시 후사오는 코쿠타이를 <돌아갈 고향>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고향에 돌아 가는 것은 <굴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전향자들은 그 <마땅함> 때문에 당당해 질 수 있었다. 하지만 하야시도 말하였 듯이 한국인은 전향하여도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향을 찾아야 했으며 그 <고향찾기>가 결국 친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 3. 전향의 개념 및 유형 - 일본의 경우

#### 1) 전향의 개념

일본사상사에 있어서 전향사는 幕末부터 시작하여 明治開化, 뒤이은 자유민권 운동에 대한 탄압을 거쳐 大正, 昭和 시기까지 이어 진다. 그러나 전향이라는 말이 단순한 하나의 단어로써가 아니라 사상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대두되었던 것은 대정말기, 프롤레타리아운동의 ‘방향전환’이 논의되던 과정에서였다. 그 때에 전향이라는 말은 지배권력의 동향에 다시 굴복한다던가, 다시 동조한다던가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야마카와 히도시(山川均)가 제창하였던 방향 전환을 노동조합주의는 경제주의와, 혁명주의는 정치운동화와의 절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방향 전환을 주장하고 나왔던 ‘후쿠모토(福本)이즘’이 <전향>이라는 기호에 의해, 역사의 보편 법칙인 변증법적 轉化의 원리에 대하여 능동적 주체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맞추어 가는 행동을 표현할 경우, 전향은 하나의 규범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후쿠모토는 대중 속에 침잠함으로써 대중을 사회에 결부시키려는 운동 태도는 무산자 결합에 관한 마르크스적 원리에 반하는 일이며, 변증법적인 운동의 방침은 ‘결합하기 전에 먼저 완전히 분리하지 않으면 안된다’<sup>22)</sup>고 하는 레닌의 테제를 적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2) 사상의 과학연구회편, 앞의 책, p.33

우리들은 지금까지 한 단계를 건너 뛰어 앞쪽에만 시야를 두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후퇴하여 (뛰어 넘었던; 필자) 그 한 단계에서부터 현실에서 발  
아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전향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 다다른 것이다.<sup>23)</sup>

위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때의 전향은 굴복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개념으로 규정된다. 어떤 상황속으로 뛰어 들어 가서 상황 자체를 목적의식적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황속에 내재해 있는 轉化의 법칙에 의지하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 객관 세계의 법칙 외에 상황과 변혁 주체와의 관계를 가능한 한 정확히 법칙에 맞게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주체적인 원칙을 만들며 그 원칙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태면 운동 자체를 법칙화 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 운동의 법칙과 객관세계의 법칙을 서로 대응시켜 변증법적으로 조화시켜 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전향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 때 전향은 대중속에 그냥 침잠하려는 무원칙의 운동에서 법칙적 운동으로 전화하려는 움직임, 바로 그것이다.

후쿠모토이즘에서 완성된 이러한 전향의 사고 방식이 국가 권력 혹은 일본의 지배 체제에 의해 역이용되어, 일본의 체제에 정통한 국민철학을 잊어 버리고 실현불가능한 ‘완전히 공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외국의 사상에 미혹된 자’(공산당 검거에 관해 1928년 6월 27일에 原 法相이 행한 담화)가 자기를 비판하고 다시 체제에 의해 인정되는 국민 사상의 주체로서 복귀하는 것을 <전향><sup>24)</sup>이라고 하는, 일본사상사에서 특이한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 진다. 이 때의 전향은 주체적으로(자발적으로) 비국민적 행동, 즉 코쿠타이를 거부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천황제 일본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순응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당국에 의해 보편화된 전향의 개념은 일반인이 인식하던 굴욕적인 의미와는 달리, 현실 상황에 대해 주체적인 자각으로, 주체적인 사상 전환을 꾀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짐으로서, 사법 당국에 의해 전향이 역이용되고 말았던 것이다. 사노·나베야마가 전향함으로써, 치안유지법에 의거하여 사법 당국이 만들어낸 이 같은 전향 개념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 1933년에 발생하는데 이들은 「공동피고동지에게 고하는 글」에서 자신들의 전향이 순전히 자각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

23) 사상의 과학연구회편, 위의 책, pp.33~34

24) 사상의 과학연구회편, 위의 책, p.34

다. 자발적인 전향은 일본 당국이 바라는 바이며, 투옥, 고문, 죽음이라는 외적 강제력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었다.

전향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사노·나베야마의 전향은 당대 일본공산주의의 붕괴를 예고하게 되고, 정치운동으로서의 천황제에 대항하여 그것을 비판하던 공산당의 궤멸은 곧 일본의 사상사에 있어서 향후 약 20여년 동안 이성적 비판 일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런 사상사적 의미를 가지는 사노·나베야마의 전향의 의미를 살핌으로서 치안유지법하에서 만들어 진 사범 당국에 의한 전향의 일본적 의미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사노 등은 기존의 일본공산당이 주장하던 일체의 노선을 전면 거부하는 데서 전향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

최근 세계적 사실(소련방의 사회주의까지도 포함하여)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세계사회주의의 실현은 형식적 국제주의에 의거하지 않고 각국의 특수한 조건에 맞추어 그 민족의 정력을 대표하는 노동계급이 정진하는 일국 사회주의의 건설을 통해서라는 것을. 민족이나 계급을 반발케하는 코민테른의 정치 원칙은 민족적 통일의 강고를 사회적 특질로 하는 일본에서는 특히 통하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다. 가장 진보적인 계급이 민족의 발전을 대표하는 일본에서는 특히 통하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다. 가장 진보적인 계급이 민족의 발전을 대표하는 과정은 특히 일본에서 잘 드러난다. 세계 혁명의 달성을 위하여 자국을 희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코민테른적 국제주의의 극치이며, 우리들도 역시 실제로 그것을 신봉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일본의 우수한 제조건을 각성하였기 때문에 일본혁명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결심을 하였다.<sup>25)</sup>

이 글에서 말하는 코민테른의 정치원칙은 <32테제>인, 「일본의 정세와 일본공산당의 임무에 관한 테제」를 지칭한다. 일본은 31년 9월 심각한 제국주의의 위기를 만주와 중국대륙의 무력점령에 의해 타개하려하는 한편 일시 후퇴하는 듯이 보였던 천황제 권력, 특히 그 중책을 이루는 광복한 군벌 세력이 급속히 전면에 나섰다. 다음 해 32년 5월에는 소위 5·15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으로 군부

25) 吉本隆明, 앞의 책, p.179

와 우익에 의해 수상 이누카이 츠요시(犬養毅)가 피살당하게 된다. 이런 긴박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한 새로운 테제가 바로 <32테제>인 것이다. 반전과 관련한 이 테제는 소련방 옹호와 일본 전쟁 패배의 당위성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32테제의 반전 임무는 분명히 반동전쟁에 있어서 전위는 자기 정부의 패배를 갈망할 뿐이며, 그 이유에는 적극적인 소련동맹의 옹호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6)</sup>

민족과 계급의 반발을 일으킨 코민테른의 정치 원칙은 사노 등의 비판 대상이었으며, 이 코민테른 테제에 대한 회의는 곧 전향 모티프 중 하나가 된다. 한국적 상황이 아닌 일본적 상황에서는 결코 민족과 계급이 동일한 것이 아닐 것이며, 그런 조건속에서 사노 등은 민족을 계급 보다 우위에 둬으로써 봉건적 우성 인자가 근대적 우성 인자를 굴복시키는, 즉 천황적 민족주의에로 돌아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 혁명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희생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당대 한국인들이 조선의 혁명, 즉 독립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려고 한 것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적 전향의 의미가 한국에 적용될 때에는 엄청난 모순을 낳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박영회의 탈레마는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sup>27)</sup>

사노가 각성한 <우수한 일본의 제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노는 우선 천황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 말함으로써 그 대답의 하나를 제시한다. 천황제가 일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코민테른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사노는 비판한다. 형식적 국제주의의 추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국의 특수한 조건, 즉 역사적 상황이나 민족성, 정치 형태 등등 저마다의 특성에 의해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노식으로 하면 일본의 경우 혁명의 중심부에는 천황의 지배체제가 놓이는 것이다.

인민대중은 황실에 대해 존경과 더불어 친화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일본 민족을 혈족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느껴며, 그 머리가 황실이라는 본연적 감각이다. 이러한 자연의 감정은 현재 어느 나라 군주제하에서도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황실은 말하자면 그 정도로 인민적 성질을 가지고 있

26) 吉本隆明, 앞의 책, p.178

27) 박영회의 전향에 대해서는 줄고 「박영희연구」(『영남어문학』25집, 1984)를 참조할 것.

는 것이다.

국민 대중이 품고 있는 황실 尊崇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 역사적 근거를 찾아냄으로써 우리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같은 입장에 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sup>28)</sup>

황실에 대한 존경과 친화의 마음이 일본 백성의 보편적인 마음인 이상 천황제 타도를 슬로건으로 내건 공산당은 <반인민적>이고, 따라서 대중으로부터 <이탈>해 갔다고 사노 등은 판단하였다. 혈연적 집단인 일본에서 황실을 <머리>라 생각하는 본연적 감각,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일본인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다고 결론내린 사노 등의 전향은 여기서 당위성을 획득하는 것이며 그 때의 전향은 <마음의 고향찾기>인 것이다.

‘천황주의적 파시스트, 몰락전향자, 사노·나베야마일파를 혁명적 분쇄의 피제사로 드리자’<sup>29)</sup>라는 강한 톤의 비판이 쏟아져 나올 것을 예상했겠지만, 그들은 단호했다. 혁명의 형태는 각국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야 하며, 전통적·민족적·사회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본은 황실을 등에 업고서 <일국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국사회주의이론>에서 그는 <우수한 일본의 제조건> 가운데 다른 하나를 또 지적하고 있다. 그의 일국사회주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의 독립, 민족의 자결이라고 하는 사상은 시대착오적인 부르조아 사상이다. 민족에는 지도적 민족과 피지도적 민족이 있다. 일본 민족은 계급간의 야만적인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견고한 민족적 통일을 획득했으며, 사회와 잘 조화하면서 유럽적인 개인주의의 침입을 격퇴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적절한 해독작용을 할 수 있는 가족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인류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여 주는 뛰어난 생산성과 자주독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지도적 민족에 속한다. 대만, 만주, 조선의 약소민족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합체하고, 일·선·대·만 인민정부속에서 동등한 권리를 향수해야 한다.<sup>30)</sup>

28) 高田通敏, 「一國社會主義者~佐野學 鍋山貞親」, 사상의 과학연구회편, 앞의 책, p.166

29) 위의 책, p.64

30) 위의 책, p.166

코민테른의 32테제가 반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사노 등은 일본의 침략정책을 어둡잡은 민족성과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빌어 옹호함으로써 32테제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국사회주의> 이론은 사노 등이 탄압에 의한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적 자각에 의해 만들어 낸 적극적 원리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론으로 미화되고 있다. 천황을 등에 업은 그는 <완전한 일본인>이 되어 갔던 것이다. 사상범의 <완전한 일본인 되기>가 사범 당국이 바라는 전향의 목적이었다면 사노 등은 치안유지법의 최후의 완성자로서, <완전한 전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론의 틀은 복본에 의해 작성된 전향의 개념과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은 복본이 정서를 기본축으로 하여 형성된 일본의 상황을 변혁하기 위해 그것과 대조적인 이론에 의해 전향하려고 했다면, 사노 등은 역으로 일본 사회에 대해 초월성을 가진 듯한 이론의 현실적 불임성을 지적하고, 현존 일본의 노동자·농민·대중의 현실감으로 복귀하여 일본 민족의 국민 철학을 변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하며, 동시에 그것을 이론화하려 했던 것이다.<sup>31)</sup>

사노가 발견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감정이다. 사노 등이 전향을 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이 <사회적 감정으로부터의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일본공산당이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서 외관상으로만 혁명적이고 실질상 유해한 군주제 폐지의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군주를,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삼은 부르조아 및 지주를 기쁘게 하는 대신 대중을 잊달아 당으로부터 이탈케 했다. 일본 황실의 면면히 계속되는 역사적 존속은 과거에 있어 獨立不羈의 당연한 발전의-세계에 유례가 적은 그것을 사물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황실을 민족적 통일의 중심으로 여기는 사회적 감정이 노동자·대중의 가슴 속에 있었다. 우리들은 이런 실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sup>32)</sup>

31)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藤田省三, 「1933년을 중심으로 한 전향 상황」, (사상의 과학연구회편, 앞의 책), pp.35~44 참조할 것.

‘일본 황실의 면면히 계속되는 역사적 존속’을 인정하고 그 황실이 ‘민족적 통일의 중심으로 느끼는 감정이 노동자 대중의 가슴 속’에 있는 한 코민테른의 32테제는 한낱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노 등은 이러한 <사회적 감정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실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사노 등에게 <권력의 강제에 의해 일어난 사상의 변화>라는 전향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른다. 물론 사노 등이 권력의 강제에 의해 사상 전환을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코민테른적 추상으로부터 천황제적 실감으로의 전환은 물리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일본인 특유의 공감(sympathy)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공감구조는 분명히 특이하다. 일본사회에서의 공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식이며, 조금도 주체의 의지에 의해 매개된 감정이 아니다.<sup>33)</sup> 일본인은 회노애락을 함께 해야 하는 장소나 때가 관습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이 관습이 곧 공감인 것이다. 주체의 능동적인 작용이며 타인을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타인의 감정을 감성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공감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통념에 따른 상식이 바로 공감인 것이다.

사노 등은 이 공감으로부터의 이탈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東大출신인 그가 일반 대중이 모두 공감하는 사회 관습을 모른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지 않겠는가? 사노 등이 복귀해야 한다고 느낀 그 순간의 <실감>은 내부와의 갈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공감의 관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小田切秀雄이 그의 글 「퇴폐의 근원에 대하여」<sup>34)</sup>에서, 옥중에서 전향하지 않고 끝까지 사상을 지킨 小林多喜二, 藏原惟人, 宮本顯治 등의 비전향측에 대해 대중의 정서를 무시하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정신적 뿌리도 바로 이 <공감>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노 등은 이 <공감>에 동조함으로써 천황제에 대한 어떤 여운도 남기지 않은 채 전향을 완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전향의 개념은 설정될 수 있다. 전향은 강제에 의해 일어난 사상의 변환과 자발적인 사상의 변환을 모두 말하되 특히 맑시즘을 포기하고 천황제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런 전향의 개념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32) 吉本隆明, 앞의 책, p.182

33) 사상의 과학연구회편, pp.44~45

34) 小田切秀雄, 「퇴폐의 근원에 대하여」, 『小林多喜二』, (有信堂, 1969)

경우에 전향은 곧 친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한국의 전향자들은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 2) 전향의 유형

전향의 문제를 공공연하게 거론하였던 일본 사법 당국은 개전의 상태를 5단계로 분류하여 전향자의 항목에 위로 3기준, 준전향자의 항목에 아래로 2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5기준이란 ① 혁명사상을 버리고 일체의 사회운동에서 벗어날 것을 서약한 자, ② 혁명사상을 버리고, 장래 합법적 사회운동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 ③ 혁명사상을 버리긴 했으나 합법적 사회운동에 대한 태도 미결정자, ④ 품고 있는 혁명 사상에 동요를 보여 장래 그것을 버릴 가능성이 있는 자, ⑤ 혁명사상은 방기하지 않았으나 장래 일체의 사회운동에서 이탈할 것을 맹세한 자 등이다.<sup>35)</sup> 이 기준에 따른다면 일단 전향의 유형은 전향자, 준전향자, 비전향자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위장전향이다. 위장전향은 전향하기 전의 사상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전향했다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다. 이 위장전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장기적인 위장전향인데, 사회적으로 그 사상이 실현되던가, 혹은 위장전향자의 삶이 끝나던가 할 때까지 그 위장성을 숨기고 견뎌내는 종류이다. 다른 하나는 단기간의 위장 전향인데, 그 위장성을 금방 버리고 이전의 사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전향이다. 권력자에게 그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에 자유를 되찾기 위한 위장전향, 혹은 타인과의 대화 등에서 순간적으로 하는 위장전향 등이다.<sup>36)</sup>

이런 범박한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하면 그것은 수 많은 갈래를 가진다. 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sup>37)</sup>

### i. 방법적 구분, 類語로부터의 구별.

전향·비전향, 전향·역전향, 전향·성장·발전·성숙, 전향·준전향·비전향, 전향·사상변화·심경변화·변심, 전향·회심·개심, 전향·적응, 전향이론·전향

35) 리차드 H.미첼, 앞의 책, p.162

36) 사상의 과학연구회편, 『전향』(하), p.331.

37) 사상의 과학연구회편, 『전향』(상), pp.11~17

## 사실

## ii. 형태적 구분

## 1. 회수에 따라.

초전향 · 재전향 · 삼전향 · 사전향, 일회 한도의 형 · 다회형 · 조금씩 하는 형

## 2. 각도에 따라

180도형, 예각형, 둔각형

## 3. 속도에 따라

즉시형, 단기형, 장기월형

## 4. 과정에 따라

직선형, 곡선형, 지그재그형, 회복형, 완전회귀형, 나선형

## iii. 전향 주체의 이력에 의한 구분

## 1. 연령에 의한 구분

청년전기형, 청년후기형, 중년형, 노년형.

## 2. 성에 의한 구분

남성형, 여성형

## 3. 가족에 의한 구분

대가족형 · 소가족형, 부친이 없는 가정 · 모친이 없는 가정, 가정에 형제가 없는 경우, 사생아로서 길러진 경우

## 4. 퍼스넬리티에 의한 구분

## 5. 학력에 의한 구분.

## 6. 직업에 의한 구분.

## 7. 애정에 의한 구분

## 8. 사상 경력에 의한 구분

## 9. 취미에 의한 구분.

## 10. 소속한 사회집단에 의한 구분.

## iv. 전향의 상황과 관련한 구분

## 1. 상황 내부에서 주체의 위치에 따른 구분

특정 개인의 전향, 복수 개인의 전향, 그룹의 전향, 소집단, 대집단, 사상류파, 국가, 민족의 전향, 동양, 서양, 인류, 신의 전향.

## 2. 대리자형, 완전동조형, 행동동조형, 언설동조형, 사상침체형, 비정치화형, 반정치화형, 자기파괴형, 비동화형, 위장전향형.

## 3. 의식에 의한 구분.

자각형, 반자각형, 무자각형, 이론형, 무이론형.

4. 강제력의 동기에 의한 전향의 구분.

취조, 검거, 기소, 禁錮, 징역, 고문, 발금, 면직, 특정의 이익 박탈, 사회적 제재, 대중 매체에 의한 선전, 감정적 압박, 사회적 동화.

5. 권력의 종류에 의한 구분

국가, 자본, 직제, 지역 집단, 부락공동체, 가정.

6. 전향 전과 전향 후를 비교한 구분

급진-반동형, 급진-보수형, 급진-진보형, 진보-반동형, 진보-보수형, 진보-급진형, 보수-반동형, 보수-급진형, 보수-진보형, 반동-보수형, 반동-진보형, 반동-급진형 등

v. 전향하던 시점에 의한 연대적, 역사적 구분.

1. 일본 역사의 구분

· 막말개화형, 명치초기형, (자유민권운동의 탄압에 따른 좌절의 뒤), 명치후기형(대역 사건의 탄압 이후), 대정대지진형,  
· 소호초기비상시형, 익찬체제형, 대동아전쟁형, 종전형, 역코스형, 중간문화형.

2. 세계사의 구분

· 선사적, 고대적, 중세적, 근대적  
· 원시공동체형, 봉건사회형, 시민사회형, 자본주의사회형, 사회주의사회형, 파시즘형.

vi. 전향의 평가에 의한 구분.

1. 무엇이 본질인가에 의한 구분.

2. 가치판단을 포함한 구분.

사상 당국에 의한 이런 류의 전향 개념에 비해 문학의 측면에서 추출한 전향의 개념은 훨씬 구체적이며 명료하다. 문학적 입장에서의 전향의 개념은 혼다 슈우고의 『전향문학론』에 잘 나와 있다. 그에 따르면 전향은 세 종류로 분류된다.<sup>38)</sup>

첫째,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전향으로, 이는 소괄호로 묶을 수 있는 전향이다.

둘째, 카토오 히로유키(加藤弘之)나 모리 오우가이(森鷗外)외에 토쿠토미

38) 本多秋五, 앞의 책, p.216

소호우(德富蘇峰)도 전향자였다고 하는 경우의, 일반적으로 진보적 합리주의 사상의 포기를 의미하는 전향이다. 이것은 이룰테면 중괄호에 묶을 수 있는 전향이다. 기독교의 감화를 받았던 명치시대 문학자들의 전향이 그 예인데, 樗牛도, 漱石도, 시라카바파(백화파)주류의 작가도 또 전향자였다는 말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전향이라고 하는 이 일본적인 말은 한편으로는 외래신사상으로부터 벗어 난다는 의미와 맞닿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천황제에로의 귀순을 의미하는 데에 연결되며, 또 동양적 자연주의에 용해된다는 의미에도 연결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대괄호로 묶을 수 있는 전향은 보다 폭넓은 사상적 回轉(回心)현상 일반을 가리킨다. 지드가 공산주의에 접근했던 것도 전향이라고 하면, 소비에트 동맹에 비판적이 되는 것도 전향이라 하는 것처럼 좌우 어느 방향에 치우쳐 있는 가를 묻지 않는 사상적 회전 일반을 지칭하는 전향이다.

<맑시즘을 포기하고 천황제로 복귀한다>는 의미의 전향 개념에 비추어 볼때 일본 문학에서의 전향의 개념은 첫째와 둘째의 것이 혼합된 형태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 유의하여 실제 전향 문제를 파고 들어 간 사람이 吉本隆明이다.

요시모토에 의하면 전향은 ‘일본근대사회의 구조를 총체적인 비전으로 파악하려다 실패하였기 때문에 지식인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의 변환’이다.<sup>39)</sup> 이같은 전향 개념은 그의 패전 체험과 무관하지 않다. 당면한 사회 총체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문학적인 지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사회의 총체는 모든 창조적 욕구에 우선한다는 그의 생각은 바로 패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이런 생각은 일본 사회의 열악한 조건에 대한 사상적인 타협, 굴복, 굴절 이외에 우성 유전의 총체인 전통에 대한 사상적 무관심과 굴복도 전향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는 데서 기인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비전향>적인 전향과 <무관심>적 전향도 전향의 범주로 설정하는 것이다.<sup>40)</sup>

근대 일본의 전향이 모두 일본 봉건성의 열악한 조건과 제약에 대한 굴복·타협으로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일본 봉건성의 우성 유전적 인자—천황제, 가족제도, 일본적 모랄—에 대한 동정이나 무관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기를 소외

39) 吉本隆明, 앞의 책, p.169.

40) 위의 책, p.170.

시킨 사회의 비전과 자기가 몰입했던 사회의 비전과의 거리가 지식인의 의식에 심한 착란을 가하고 있으며, 이 착란이 전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요시모토가 그려 내고 있는 전향의 유형은 3가지이다.

첫번째 유형은 내발적인 의지에 의한, 대중으로부터의 고립감에서 오는 전향이다. 살아서 생포되는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군국주의 사상에 철저히 길들여진 천황제하에서는 이름도 없는 서민까지도 적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고 하는 행동의 원칙이 삶의 철학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연대 의식이 있을 때 인간은 얼마나 강해지며, 고립감에 젖어 있을 때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서구의 정치 사상이나 지식에 몰입하여 일본의 국지적 상황을 경멸하던 모더니즘적 지식인이 막다른 골짜기 일본의 봉건제로부터 몰려 고립되었을 때, 모멸을 느끼고 이탈했다고 믿었던 일본적 소상황에 의해 다시 구제받는 것이 바로 사노·나베야마의 전향인 것이다. 이 때의 전향은 봉건적 유전인자에 대한 철저한 굴복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두번째 유형은 <전향이라 할수 없는 전향>을 하는 <불가피한 전향>이다. 이러한 전향은 나카노 시게하루(中野中治)의 전향소설 「시골집」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작중 인물 勉次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전향 출옥하는데, 이것은 작가의 삶과 꼭 일치하는 것이다. 주인공 勉次가 전향 출옥후 집에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 孫藏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된다. 무엇을 해도 안된다. 좋은 일을 해봤자 하면 할 수록 나빠질 뿐이다. 좋아질 리가 없다. 내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으나? 남의 앞에 서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여도(중략)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하여 수양을 해 본들 다 물거품인걸. 내가 체포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식구들은 죽어서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일체 일을 그리 처리해 왔다. <小塚原>에서 뼈가 되어 돌아 온다고 생각하여 만사 그렇게 해왔다.

아버지들은 무엇을 읽겠는가만 와지마(輪島) 같은 것을 쓴들 이것저것 모두 다 전향의 변명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것을 써서 뭘 하겠니? 아무튼지 무엇을 쓸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쓴 것을 쓸모있게 하려면 붓을 던져 버려라. 그 무엇을 써 본들 헛일이다. 지금까지 쓴 것을 죽일 뿐이다.<sup>41)</sup>

41) 吉本隆明, 앞의 책, p.176.

‘붓을 던져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아비 孫藏은 오랜 동안 여기저기서 말단 공무원 생활을 하여 지위나 돈은 없었지만 두 자식을 대학에 보낸 정직한, 평범한 서민이다. 요시모토식으로 말하면 아비는 일본의 봉건적 우성 유전인자에 철저히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아비는 전향하여 <살아 돌아 온>아들을 감옥에서 <죽어 빠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고 꾸짖고 있는 것이다.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봉건적 우성인자에서 기인한 이런 생각은 전향한 뒤 써내게 될 아들의 글들을 <전향의 변명>으로 결론지음으로써 스스로 수치심마저 느끼게 되는 것이다.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수치스런 목숨>을 아들이 부지해 온 이상,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그 약속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호된 꾸지람을 들은 아들은 ‘붓을 던져 버리라’고 말하는 아비에 대해 ‘잘 알겠습니다만, 역시 써내려고 생각합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것은 勉次가 다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봉건적 우성과의 대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노 등의 전향이 일본봉건제의 우성인자에 대한 무조건적 굴복이라면 나키노의 전향은 굴복함으로써 대결해야만 하는 진정한 적을 깨닫게 된 새로운 투쟁을 향한 전향이었다. 이를 요시모토는 ‘불가피한 전향’이라고 부른다.<sup>42)</sup>

세번째 유형은 일본적 모더니즘에 의해 전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쿠라하라 코레히토(藏原惟人), 코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 미야모토 켄지(宮本顯治),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등을 포함한 비전향자들이다. 일본적 모더니즘의 특징은 사고 자체가 결코 사회의 현실 구조와 대응되지 않도록 논리 자체의 자동성(automatism)에 의해 자기 완결을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맑시즘의 체계가 한 번 일본모더니즘에 의해 채택되면 원리로서 완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현실사회의 구조나, 시대적인 구조의 변화에 의해 검증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한다.

1932년을 전후한 프로레타리아문학운동의 해체기에 행해진 우익적 편향에 관한 논쟁에서 林房雄, 龜井勝一郎, 徳司山治, 藤森成吉 등을 비판했을 때의 코바야시, 미야모토 등의 논리는 바로 이 일본적 모더니즘의 사고형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들의 비전향은 대중적 동향과는 접촉하지 않은 채 이데올로기의 논리적인

42) 吉本隆明, 위의 책, p.175.

사이클의 방향만을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노·나베야마의 전향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놓인다 할 수 있다. 히야시 등이 문학을 문학의 토대 위에 구축하려 들었을 때 코바야시 등이 <주체의 적극성> 문제를 들고 그들을 비판한 것이 우익편향논쟁이었다. 이 때 코바야시 등이 문제삼는 것은 林房雄이나 龜井勝一郎의 논지의 배후에 어떠한 사회적 동향이 있는가, 어떤 대중적 기초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본적 모더니즘에 의해 완결된 맑시즘으로 유통되던 당시의 이데올로기적 사이클을 기준으로 하여 모모는 그로부터 이탈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문제삼았을 뿐이다. 이같은 원칙 논리는 그것이 자체내의 잘못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상적 실체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단지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논리로 대체될 뿐이다. 이런 점 때문에 비전향의 측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향의 심리>가 어찌면 무의식속에 배태되어 있었는 지도 모른다.

원칙 논리를 공전시켜 사상 자체를 현실적인 동향에 의해 시험하거나 심화하려 하지 않은 코바야시나 미야모토의 <비전향적> 전향을 小田切이 대중과 현실을 무시 내지는 배반한 것이라 비난했을 때 그것은 코바야시 등의 비전향이 사노·나베야마의 전향과 같은 뿌리에서 난 다른 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노·나베야마의 전향이 일본 봉건제의 우성인자에 대한 굴복이었다면, 코바야시나 미야모토의 비전향은 열성인자에 대한 대결의 회피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노식의 완전 전향이나 코바야시식의 비전향 모두 현실을 무시한 허황된 정신세계에서 나온 것들이다. 吉本이 전향의 기준으로 삼은 '일본사회의 총체적 비전'에 가장 근접된 전향은 나카노식이다. 앞선 두 전향은 일본사회의 총체에 의해 대응되지 않는, 무비전의 사상적 비극이라 한다면 나카노의 전향은 전향이라는 비극 뒤에 맞게 되는 희망의 기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에 합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붓을 던진다면 정말 끝장'이라고 하는 각성은 역사를 지탱시키는 최소한의 오기이며, 나카노는 그 오기 때문에 혼자 진지하게 일본적 봉건주의와 싸워갔는 지도 모른다.

藏田省三은 吉本과는 또 다른 전향의 유형을 내놓는다. 그가 전향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 사상적 기반은 이데올로기의 계층(일본적 세계관의 조작자-체득자-실천자)과 사회적 담당자의 계층(정치적 지식인-순수지식인-대중사상가)의 복잡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 그가 설정한 전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sup>43)</sup>

제1유형은 농본주의적 사상가의 전향이다. 천황제 파시즘이 잇달아 작은 전쟁을 일으켜서 대외적으로 위기를 조장하면서 공동체적 국가관을 강화해가는 과정은 국가를 지배메카니즘으로 파악하려는 국가기구적인 사고 방식을 점차로 분해·흡수해가려는 과정이며, 동시에 감성의 개별성을 말살하여 일본적 공감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과정이었다. 전향은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일본적 공감은 공동체적 유물론의 소산이며 그 기저에는 농본중심의 사고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전향의 노선은 카토우 히로유키(加藏弘之)등을 필두로 하여 근대 일본의 제도통과형 中小秀才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것이며 30년대에 접어들면 쓰기 야마 쿠이쓰케(杉山平助)나 코바야시 모리토(小林杜人)등에게서도 나타난다. 농본주의에 바탕을 둔 민족적 공감은 어느 정도 골수에 깊이 박혀 있었는지를 쓰기 야마는 다음과 같이 밝혀 놓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 직면하여 사상적으로 무엇 보다 고뇌하고 곤혹스러워서 취해야 할 방도에 갈피를 못잡은 것은 늘 그러하듯 정직하여 氣弱한 인텔리겐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솔직히 고백하면 나도 그같은 사람 중에 하나다. 나는 본능인으로서의 자신이 일본인다운 강렬한 민족 의식에 골수까지 파고들어 갇음을 고백한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 용감한 병사들의 활약상을 읽으면서 해치웠구나!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눈물이 줄줄 흘러 내린다. 일본군의 통쾌한 승전보는 마치 안마라도 하고 있는 듯이 전신의 신경을 기분 좋게 풀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쩔 수 없는 나의 위장된 감정은 인텔리겐차인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국제적인 평화주의의 <이론>과 여하히 융화시킬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교의로 평화주의의 <이론>이라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반드시 의지도 감정도 동반하지 않은 핑계만의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支那人, 한국인, 미국인, 독일인과의 동포감을 나의 내부에 느끼고 있다는 것을 끊어 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내 내부의 국제애에 대한 본능은 내 내부의 민족적 자기 보존의 본능과는 도저히 <정면>으로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해져 <빈혈적인 것>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선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sup>44)</sup>

43) 藏田省三, 앞의 글, 참조

44) 藏田省三, 위의 글, p46~47

만주사변시 일본의 전승 사진이 들어 간 보도를 보고 ‘눈물이 줄줄 흘러 내리’는 감격에 ‘본능인으로서의 자신이 일본인다운 강렬한 민족의식에 끝수까지 파고 들어 갔음을 고백’하는 코바야시에게는 감각적 세계관은 곧 본능적인 것임을 눈치챌 수 있다. 전쟁의 승전보가 주는 <안마적 기능>은 吉本이 말한 일본적 모더니즘에 의해 국제적 문화교양주의로 흘러가려는 中小秀才들을 <일본인의 감정>으로 복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적 감정을 회복하는 기회는 비단 전쟁만이 아니고, 그것과 결부한 사상운동의 탄압에 의해 격리되는 경우에도 주어진다. 일본인은 그들만의 공동체 사회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공감에 의한 결합이 단절될 때에 공감의 중요성이 재발견되고 그것이 세계관의 축으로까지 승화되는 것이다.

농본주의에 바탕한 공산주의자들은 감금될 경우 감정의 세계로부터 과거 비판을 단행하고 가족애의 절대성을 받아들여 단지 무산자라는 이유 때문에 소련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그것이 일본인으로서의 국가의식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공감으로서의 일본의 상식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 때의 상식은 순전히 농본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코바야시의 경우를 보자.

小野-小林 자신-가 운동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그만큼 집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 일손이 적어지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사람을 사면 돈이 필요하였다. 소작농으로서 이러한 일은 경제상 어려웠다. 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그 여동생은 제사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小野가 하루 밖에 나가면 그 무거운 짐은 고스란히 부모의 두 어깨 위에 떨어졌다. 小野가 농민조합운동에 종사하려 할 양으로 된 때부터는 아버지 혼자서만 밭에 나가는 날이 많았다. 초라한 농부의 모습을 하고서 머리가 굽어 버린 자식에 대한 불평을 한 마디도 않은 채 밭에 나가시는 아버지를 생각해 내고는 옥중에서 울었다.<sup>45)</sup>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이에 가장 가깝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小野는 고립되어서야 알 수 있었다. 옥중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는 만주사변이 있기 2년 전인 1929년에 남보다 먼저 <청산·방향 전환>을 하였지만 그 때의 전향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폐를 끼치고

45) 藏田省三, 앞의 글, p.49.

있는 노부모나 형제에 대한 <변명이 아닌 충심>에서의 사죄감이었다. 그 속죄의 마음은 가족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깨우침의 결과이며 이것은 감성을 축으로 하는 일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전향일 것이다.

제2의 유형은 대중주의에 기초한 사노·나베야마식의 전향이다. 그들 스스로 말한 전향 이유 중 하나는 공산당이 <중요한 노동자층으로부터 유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새로 바꾸어 그들과 합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 데 있다. 지배계급 사이에서는 <불초의 자식>이 거듭 <빨갱이>가 되어 가고 있어 경악하거나 공감하던 때에도 노동자·농민층에서는 상층부의 경악과는 달리 전혀 관심이 없어 냉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인 한에서는>, 현재의 대중의 <건전한 정치적 관심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사노·나베야마는 주장하였다. 여기서 성명서의 ‘우리들은 대중이 본능적으로 드러낸 민족의식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하는 테제가 생기는 것이다.<sup>46)</sup> 이런 민족의식에서의 회귀는 일본제국주의를 맹주로 하는 아시아지역의 사회주의화 노선이 고안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것은 봉건적 우성 유전인자애의 굴복에 지나지 않는 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제3유형은 전향 경험의 긴장감을 내부세계로 향하던 일종의 전향의 비전향이라는 형태다. 농본주의의 전향자 대부분이 사죄의 마음을 매개로하여 자기 자신을 구하고, 정신적 긴장감에서 해방됨으로써 다시 <자유로이> 사회활동을 전개해 갔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그들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일원적 충성을 다하지 않았던 <죄>를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공격당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전향경험의 긴장을 더욱 더 내부세계로 향해 가는 방법을 취했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하니야 유타카(埴谷雄高), 시이나 린조우(椎名麟三) 등이 있다. 이들은 전향점에서 정지한 채 기준도 없이 밖으로 나가 사회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저 편에만 있다고 생각되는 확실한 절대적 이념을 찾아 낼 때까지 오로지 내부세계에서의 사회활동, 즉 상호소통에 매진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죄와 모순을 자신의 세계에서 찾음으로써 일본에서 종교 정신의 개척자가 된다. 시이나는 죽음과 기독교에서, 하니야는 동양적 초월자의 이미지에서 절대적 이념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들 전향의 비전향은 나카노의 비전향의 전향과는 엄연히

46) 위의 글, p.57

구별된다. 나카노식의 전향이 현실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과 대결해 가려한데 비하여 하나야·시이나식의 전향은 천황제를 비롯한 현실의 모든 것을 초월한 곳에서 자신들을 이겨가려 했기 때문에 종교적이라 했지만 그것은 더 엄밀히 말하면 비종교적인 것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시이나에 있어 신은 <죽음으로 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죽음 뒤에 남는 것은 허무 뿐이며, 사법당국 기준에 따르면 하나야·시이나가 천황제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전향은 전향의 비전향이 되는 것이다.

#### 4. 한국에 있어서의 전향문제

이미 정의를 내린 바 있는 전향의 정의인 ‘강제에 의해 일어 난 사상의 변환과 자발적인 사상의 변환을 모두 말하되, 특히 맑시즘을 포기하고 천황제로 복귀한다는 것을 말한다’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경우 그것은 심각한 사상사적 딜레마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에 맞는 한국적 개념을 추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박영희가 말한 것처럼 ‘일본사람은 끝끝내 일본사람이고 한국사람은 끝끝내 한국사람’이라는 대전제가 옳다고 인정한다면 전향의 상황이나 개념도 한국에 맞는 것을 당연히 찾아야 한다.

‘일본 황실의 면면히 계속되는 역사적 존속’과 그 황실이 ‘노동자 대중의 가슴 속에 민족적 통일의 중심’이라고 느끼는 그 자체를 거부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는 카프의 문학운동은 일본의 사회주의자들이 가진 황실에 대한 거부와는 정신적 뿌리가 달랐다. 일본인의 가슴에 무한한 깊이와 넓이로 자리하고 있는 <코쿠타이의 포근함>은 한국인의 가슴 속에는 저주와 멸시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싹을 도려내는 것이 조선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국인은 사노·나베야마나 하야시 후사오가 전향하여 포근히 안긴 <코쿠타이의 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사노·나베야마가 자발적으로 전향을 하게 만든 국민적 공감에 의한 대중적 고립감은 애시당초 느낄 필요도 없었다. 박영희적 딜레마로 표현될 수 있는 그 딜레마는 모든 한국인, 특히 카프 문인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다.

한국적 전향의 표본인 박영희와 관련한 이야기에 주목하면 한국적 전향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그전 「카프」사건에서 나는 삼개월 동안 고문에 몸이 쇠약하여져서 심장 각기로 쓰러 지니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적십자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감옥의 내용을 잘 몰랐다.<sup>47)</sup>

종로경찰서에 구속된 회원은 이듬해인 1932년 봄 김남천을 제외한 피구금자 전원과 함께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 나왔는데 그동안 심한 고문을 받았으며 건강이 악화되어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일을 요했다.(가족들의 증언)<sup>48)</sup>

금일 송국된 17명중 권경환과 박영희는 병으로 그간 석방되어 치료중으로 불구속으로 송국되었고…….<sup>49)</sup>

위 세 인용문은 모두 박영희의 건강을 문제삼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그 건강이 순전히 투옥과 고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일본인이 검거되었을 때 적용하던 게임의 룰이 조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추정 가능한 것은 박영희와 관련한 기사와 박영희의 자전적 소설 「독방」을 통해 본다면 게임의 룰이 잘 지켜지지 않았거나 아예 조선인에게는 게임의 룰 같은 것조차 없는 일본인 단독의 일방적인 플레이가 펼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심한 고문으로 인한 두려움 그것은 박영희의 심적 동요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카프검거 사건과 관련한 그 어떤 문서들도 카프원들이 공산주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 그것은 카프원들의 치밀한 위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산주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향 개념에서 공산주의와 관련한 항목은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심한 고문이나 감금에 의해 이루어진 전향이라면 자발적인 사상의 변환이라는 항목도 삭제되어야 한다. 고문이나 감금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박영희의 솔직한 고백의 글을 다시 인용한다.

나는 임군을 만나 카프의 정식 해체를 권고하였다, (중략) 그러나 임군은 나의 말에 반대하였다.

임군의 의향을 알게 된 나는 할 수 없이 개인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

47) 박영희, 「독방」(《현대문학》, 45호), p.32

48) 이어령, 『한국작가전기연구』(상), (동화출판공사), p.153

49) 《조선일보》, 1931년 10월 6일자.

었다. 나는 신간회해소 때에도 나 자신이 해소에 찬성도 아니 하면서 휩쓸려 그 와중에 들어가 고배를 맞본 까닭에 이번에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하였다. 이번에도 조금 부주의하면 공산당원도 아니면서 애매하게 그물에 걸릴지도 모르는 까닭이었다.<sup>50)</sup>

“윤주큐고! 아니 그런데 웬 잠꼬대냐 말야. 온통 악을 쓰고 야단이니 주의 해!”

그는 초저녁에 들어왔던 조선사람의 간수이었다.

“아,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몸이 쇠약하면 헛소리를 하기 쉬워요. 주의하겠습니다.”

나는 잠깐 동안에 무서운 꿈을 꾸었던 것이다. 나는 잠시 검사와 싸웠다. 검사는 나를 심문하는데 내 말은 잘 듣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여러가지 무거운 죄목을 느러 놓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놈! 네가 검사냐. 네 마음대로 나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 안된다. 안간다. 이놈! 이 개만도 못한 놈!”

하고 나는 검사의 먹살을 흠쳐주고 발길로 찼다. …… 눈만 감으면 흉악한 꿈이 많았고 산란하였다.<sup>51)</sup>

감옥과 고문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한국의 경우 무엇 보다 우선하는 전향 조건이었다. 여기에 그 요인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한국적 정서와 관련된 <피내림의 내력>, 즉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결국 카프문인과 관련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전향의 개념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강제에 의해 일어난 사상의 변환이며 특히 혁명이론에 바탕을 둔 사람들의 사상의 변환’이라 규정할 수 있다. <못된 땅아저 길들이기>의 논리가 적용된 한국적 상황의 특이함에서 벗어난 전향은 분명히 일본의 그것과는 사상사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강압에 의한 전향은 민족이나 국가 혹은 당대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공감예의 고립감에서 오는 불안함 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향 유형의 분석은 훨씬 더 치밀해야 하며 여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50) 박영희, 「초창기의 문단축면사」, (최종회), (《현대문학》 65호), p.239

51) 박영희, 「독방」(《현대문학》 45호), p.29